

웨신 단합대회 및 교단성장전략회의 가져

여목 임직은 현행헌법으로 불가.. 헌법 개정이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는【새시대 새 얼굴이 되자!】는 주제로 제 93회기 교단 신임원 및 전국 각 노회 신임원을 초청 환영하고 교단성장전략회의 및 단합대회를 지난 11월 3일~4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컨벤션리조트에서 가졌다.

첫째 날 제93회기 본 총회와 노회발전을 위하여 선출된 총회, 각 노회 임원들이 모여 오후 5시 1부 개회예배를 서기 신언장(남부노회)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수도노회장 김준택목사가 기도들, 부서기 최은수 목사가 성경봉독을,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라는 제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11:40과 민족을 위하여 헌성노회장 전명철목사, 2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중앙노회장 정일광목사, 3웨신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서울노회장 허성민목사, 등이 각각 기도를 드렸으며 지분 김용진(중앙노회)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2부 저녁식사 후 오후 6시30분 “전교의 밤” 시간을 가져 전국 각 노회별 임원소개를 가졌다. 이어 저녁 7시에 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인



사말씀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제93회기 웨신총회와 노회발전을 위하여 선출된 총회 노회 임원들을 축하 격려했다. 장 총회장은 함께 위대한 비전을 향해 전진하자며 웨신교단 산하 교회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힘찬 꿈의 행진을 시작하자며 장 총회장은 이러한 새로운 도약의 기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장 총회장은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몸심양면 힘쓰고 애쓰는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금년 교단성장전략회의와 단합대회를 통해

위도와 중전의 시간이 되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총회발전을 위한 교단성장전략을 놓고 방향토의에 들어가 회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긍정적인 토의가 밤 9시까지 진행되고, 저녁 9시30분부터 12시까지 1부 총회 임원과 각 노회장은 공천위

원회와 실행위원 모임을 2부 1차인 목사 인도로 헌법과 규칙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 11월 4일 6시30분 총회 성장 발전을 위한 분과별 본토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장 장관선 목사가 신학교와 교단과의 관계를 발표 본 교단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와의 관계가 속히 정상화 될 것을 주문하고,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신학교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총회가 관심을 기울이며, 신학교주임을 전국교회와 현금을 하여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2분과장 김상문 목사는 여자 목사 임직에 대

해서 발표했다. 결과는 현행헌법으로는 불가하기에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총회에서 다루어 개정된 헌법에 의해 여목 임직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3분과장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는 교단 영입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교단과의 영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뜻 있는 교단들과 연합하여 하기 수련회와 체육대회도 구상 중에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몇 번의 교단 통합으로 실패를 가져왔기에 교단과의 통합과 영입 등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4분과장 최은수 목사는 중소교회 성장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자신의 경험과 많은 기성교회와 대교회의 장 단점을 지적하며 교회 성장에 있어서 오직 기도와 노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충실히 하는데 있다고 발표했다.

5분과장 신언장 목사는 총회운영 방안을 실행에 맞게 다루면서 총회를 위하여 선출된 막중한 직책이 맡겨졌기에 사역하고 있다며 총회 임원들은 각 노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과 총회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회예배에 들어가 회의를 서기 이재갑 목사 사회로 남서울노회장 장한국 목사가 기도를, 부회의를 서기 백승대 목사가 히 11:28 말씀을 봉독,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단”이란 제의의 설교를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총회장 장영기 목사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때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때다

지난 18-19일 충청도 일대에 첫 눈이 함뻍 내렸다. 온 세상이 온통 하얗게 눈에 덮혔다. 지저분한 쓰레기와 오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경과 경계도 덮였다. 농촌에는 농부들이 미처 출하하지 못한 김장배추도, 하얀 이불을 뒤집어쓴 채, 고요하게 숨죽이고 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소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색깔과 소리를 발하며 여기저기 자신들의 주장을 내어 놓으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후퇴되어 가고 있다. 여당이 야당인지 야당이 여당인지 서로 헷갈리는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를 바로 세워나야 할 참된 지도자의 리더십은 이미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1,20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양적 숫자는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5만 교회 10만 명의 목회자 수도 이제는 지난 간 과거의 통계에 불과하다. 양적 숫자에 비해 한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해진 한국교회와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바다는 5%의 소금으로 정화가 되지만 한국교회는 10%를 넘기고도 부패와 오염을 막지는 못하며, 오히려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한 만한 사건은 이제 한국교회는 잡식과 썩람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없이 높아만 가는 대흥교회 건물과 신자가 많은 지역의 낮은 교회들을 다 집어 삼킬 만큼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힘없고 약한 작은 교회를 끌어안고 함께 지역복음화를 위해 협력하는 일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되어 서로 자기편 사람 만들기애 바쁘고 이에 한몫 거드는 소위 정치꾼들의 개인으로 교회는 급격한 썩람현상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얼마 전 한 교계신문지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유수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기독교 연합단체가 막대한 선교비로 건립하거나 구입한 건물들 임대하면 서 나이트클럽과 주류도매업자에게 임대

를 주고 수익을 행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교회 10대 주요뉴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사로 한국교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거둬와 순결, 그리고 헌신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과의 타협과 아랑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과거에는 극히 일부 목회자와 부흥사들에 의해 발생되던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교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은 가려지고 부정적인 측면만 점점 더 크게 부각되어 드러나 세상과 윤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하얀 눈같이 세상을 심판하여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비극적인 현실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의 희망으로 덮자. 어떠한 상황도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덮자.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치유시켜야 한다. 이제는 교리도, 교단정치도, 신학도, 리더십도 아니다. 이미 한계 상황을 벗어났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질 뿐이다.

정의와 윤리를 내세워 세상의 허물을 들춰 수술해 보겠다고 요란 법석을 떠는 지도자들이여, 이제는 좀 앞전혀 앉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강물같이 하수 같이 흘러 온 세상에 덮힐 때, 세상은 비로소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일한 것이 문제다. 다 내가 했다. 정치도, 목회도, 세상의 정화도, 큰일도 다 내가 앞장서서 했다. 기를 쓰고 앞장서서 피를 흘리며 내가 했다. 주님이 일 하실 틈도 여유도 드리지 않았다. 반성하자. 회개하자.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악을 쓰고 일했다. 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상처만 더 커졌고, 문제만 더 커졌다. 자 이제는 좀 쉬면서 안식하면서 미래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자. 할렐루야!



장승현 목사
— (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교회 담임목사
— 본지 본설위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그는 누구인가

"이제 미국에 변화가 찾아왔다"

오바마는 당선 연설을 통해 정치, 외교, 환경 등 모든 방면에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는 대선을 통해 이런 믿음이 새로운 21세기의 약속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이런 대선에 21세기에도 미국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의 선조부터 후손들까지 수백 년 넘게 가슴속에 담아온 응어리를 녹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했다.

미국 전역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오바마 후보와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일부는 살아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 자 말처럼 하기도 했다.

흑인이 대선후보가 된 것은 미국이 독립선언을 통해 건국한 1776년 이후 232년 만이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끌려왔던 흑인들이 1863년 1월1일 노예에서 해방된 지 145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흑인 남성이 투표권을 부

여받은 1869년으로 따지면 139년 만이다.

이런 후보 수락 연설 장면 하나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45년 전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나에게 꿈이 있어요”라고 한 연설에 대한 기억을 안고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흑인들에게 흥분이자 감동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1961년 8월 4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출생. 케냐 출신 미국 유학생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주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한때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불행한 청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91년,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시카고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기독교계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기반을 다졌고, 1990년대에 지역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드높였다. 1996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4년 11월,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70%의 기록적인 득표로 당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중앙 정치무대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개혁신당 아프리카계 정치인이라는 프리미엄과 더불어, 2004년 민주당 보스턴 전당대회 등에서 보여준 천재적인 대중연설 능력과 열성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7년 2월,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경선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시절부터 명문 없는 이라크 전쟁에 거듭 반대해온 그는, 집권시 2008년 3월까지 이라크에 파병된 자국 군인의 완전한 철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와 대학 교육비용 절감 및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금 제도 개편 등 더욱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도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더불어 에탄올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화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워싱턴 기성 정치권의 신보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젊은 층과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인기가 더



높으며, 흑인들의 지지세가 높아진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성공했다.

버락 오바마는 ‘케냐와 캔자스 출신의 저의 부모는 유복하거나 유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그들의 아들이 가슴 속에 품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며 수락 연설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 온 집한 12만 5천여 명의 청중을 향해 부시 정권의 종식을 선포했다. 변화, 이 단어는 오바마의 선거운동 21개월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였습나다. 양극화, 사회적 관용의 상실, 의료보험 등 복지 시스템의 붕괴, 에너지 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부시 정권 8년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오바마는 그 일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 난제라며 국민의 봉사와 회생을 중화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인기가 더

주보는 교회의 얼굴! 우리교회 주보, 우리가 만들어요!!!

컬러디지털(주보)복합기



COLOR 203

- 분당 컬러, 흑백 20/25/30매 고속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세계최초, 최대 1m20cm출력



COLOR 252/352

- 분당 컬러, 흑백 20/25/30매 고속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특별할인가 ₩1,199,000 → ₩790,000



매직칼라 2490MF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 색감
 - 2400×600dpi의 인쇄 / 복사 해상도
 - 정밀하고 선명한 인쇄 품질의 simitron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저렴한 유지비(4,500매 고용량 토너)
 - 흑백20매, 컬러5매의 분당 인쇄속도
 - 월 권장 출력량 35,000매의 튼튼한 구성
- PC없이 직접 사진 출력
 - PC없이 직접 사진 출력
 - FAX 기본기능

전자용 디지털 주보인쇄기



DP-3217IP

-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접지기 · 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 B5-A3까지 중철제본 · 접지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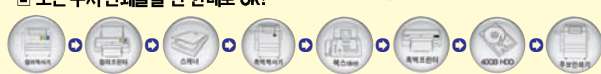


주보접지기

-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격 조절 기능 분당 120매 접지

■ 8가지 기능을 한대로!
■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www.jubo114.com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총로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100주년기념관 앞)
Tel: 02)62-8572 Fax: 02)764-5893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7-9 영광빌딩
Tel: 02)2065-1004 Fax: 02)2065-1005



한지협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연임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보아야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사회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사랑과 공의,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2년 임기의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한지협) 대표회장으로 연임된 신신묵(한교교회 원로)목사는 "교회나 교단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봉사 외에도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께폐인이나 사회적 여운을 주도하는 일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33년의 역사를 가진 한지협은 1992년부터 사랑의한복을 시작해 60만60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도왔고 다양한 국내외 구호활동과 봉사를 펼쳐왔습니다."

신신묵 목사는 한지협 창립멤버로 한국

교회 부활절연합예배, 기독교민운동협의회,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등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교회연합운동의 산 증인이다. 화합과 양보, 깨끗한 재정관리가 연합



운동을 장수케 하는 비결이었다는 신 목사는 교계 원로 및 중진 목회자들과 폭넓은 교분을 나누며 '한국교회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한지협은 지난 1992년 LA에서 흑인목동이 났을 때와 9·11 테러, 카트리나 태풍 때 구호금을 들고 미국을 찾아가 한·미 우호를 돈독히 했지요. 교계 원로들을 주

축으로 철저한 보수신앙을 견지하며 기독교의 정체성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신신묵 목사는 "한지협은 현재 미국 뉴욕과 LA, 일본 도쿄에도 지부를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드니에도 창립할 예정"이라며 "한지협 차원에서 기독교기관들과 연합해 교회재산법이나 사회 복지 관련법, 국내 NGO 등 정부 차원의 바른 이해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협은 12월 22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소속인 600여명을 초청해 위로잔치를 연다. 사회가 각박해짐수록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는 까닭이다.

한편 신 목사는 2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일보사가 선정 한 '2008 대한민국 교역자'로 그랑프리 목회자대상을 수상한 안았다.

피종진 목사 성역, 설립40주년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는 성역40년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아 많은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의 축하를 받은 가운데 지난 10월 19일(주일)저녁 교회 본당에서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역40년,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은 남서울중앙교회는 68년 10월 20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피종진 목사와 사모 내외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받들어 선교, 화평, 축복의 3대 지표에 5명의 신자와 더불어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형교회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예전근 담임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이종인 목사가 대표기도, 송정석 장로가 성경봉독, 김준근 목사가 "전도자의 선한 싸움"을 다 짜우고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회고록"만 제하의 말씀이 있는 후 영상을 통한 피종진 목사 성역 40년 축하메시지가 소개되고 이어 안재현 장로가 회보전 헌정, 박상규 장로가 축하해 증정, 송재현 장로가 축하선

물 증정, 박종구 목사, 민경배 박사, 한영훈 목사 등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말했다.

또한 피종진 목사는 성역 40주년 화보 출판 기념 만찬회를 가졌으며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인사를 전했다.

피종진 목사는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이며 미국 Handerson 대학교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CRC 교수, 한영신학대학교 운영 이사장 및 교수,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연세총동문부흥협의회 총재, 미국JCTV 생방송국 이사장, CTS 기독교 TV 부흥협의회 총재, 국민일보보인 이사, 서울경찰청 경무 및 교경중앙위원, 크리천연합신문 대표회장, 극동신문 총재, 목회자사모신문 이사장,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총재, WEM 세계복음협의회 대표총재,로 국내 대표적인 부흥사로 사역중이며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The Jesus Times
www.cpj.kr

(재)성혜장학회 제1회 장학금 전달식

우수인재 양성 위해 장학회 설립하여 꿈과 희망 전한다
고교·대학생·대학원생 등 총37명에게 5100만원 전달

(재)성혜장학회 이사장 김성혜 한세대총장이 18일 오후3시 여의도 CCM빌딩 12층 무봉홀에서 제1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혜장학회는 학업우수장학생, 사랑·복지장학생, 장려장학생 등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5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성혜장학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부인인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이 학업, 기술, 예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



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 28일 설립했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김성혜 총장의 기부로 20여명의 출연금이 마련됐다.

성혜장학회는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 수혜학생이 국가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새에덴교회 정금성 권사 고회 및 출판기념예배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고회를 맞이한 정금성 권사는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 죽전동에 위치한 새에덴교회에서 고회 및 출판기념예배를 드렸다.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는 장모인 정금성 권사의 고회를 축하하고 간증집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가 한국교회에 섬김과 희생의 신앙을 회복시키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금성 권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희생을 다하여 사셨다. 새에덴교회 1만여 평의 프라미스 콤플렉스 성전을 건축하고 2만 성도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늘 제 곁에서 기도하며 눈물과 희생의 씨를 뿌리셨다.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는 그 헌신의 눈물의 기록이다. 오늘 기념강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눈물로 씨를 뿌리는 헌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손 대대로 축복의 명분기를 이루는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에게 감화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축하했다.

월간목회 발행인 박종구 박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소서"란 책은 오직 예수 사랑, 오직교회 사랑을 오직 기도로 승화시킨 간증집이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 힘겨운 세미나를 헤쳐 나온 가족사는 신앙으로 승리한 고백이요, 감사요, 찬양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드라마틱하다.

이 책의 스토리는 복선구조다. 저자의 40년간의 생애가 소강석 목사의 목회 사역과 아우러져 듀엣으로 전개되고 있고, 기도의 어머니 정금성 권사의 비전의 목회자 소강석 목사와의 만남은 그 자체가 폭발적인 역동성을 암시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신에서 확신으로, 현상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오늘에서 미래로 확산된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의 응답,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굴의 신앙의지,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축복의 현장, 인간의 의지 너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대장정은 마지막 쪽까지 즐거차게 독자를 끌고 나간다. 흔히 자서전이나 체험담은 자기절제가 쉽지 않는 법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각 장에서 절제의 미를 만날 수 있다. 현란한 수사나 과장이 배제되어 있다. 스토리도 절제되어 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채 다음다음 장면으로 전환된다. 자랑 또는 자기미화 부분은 최대한 희석시키고 있다. 그래서 신뢰가 있고, 그래서 간증미가 있다고 사랑을 했다.

이날 전현직 집사와 글로리아찬양단의 찬양으로 연 행사는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박정화 장로가 기도, 박인환 장로가 성경봉독, 새에덴교회 찬양대 찬양에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만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최병남목사 김영진 의원, 황우여 장로, 김승규 장로가 축하를, 김장환 목사, 김삼환 목사가 영상축사를, 이태원교수가 축송을, 박종구 목사가 서평을, 김성영 목사가 축사를, 이어 소강석 목사가 인사 및 내린소개, 축하해 감사해 공로패를 증정하고 김원규 장로가 광고를, 서기행 목사 축도로 마쳤다.

또 진행된 축복과 나눔은 기원호 안수집사,이경희 집사의 사회로 박인환 집사가 모시는 믿음, 뮤지컬 찬양팀이 특송, 케익컷팅, 배례, 소강석 목사의 감사인사, 국악찬양팀, 천사소리합창단, 박주옥 목사, 유지영 집사가 축하노래를 하는 순으로 이어졌으며, 서광수 장로가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성원 박영를목사 교수정년퇴임식 가져

성원 박영를 목사는 지난 11월 20일 오후 5시30분 종로5가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기념문집 출판기념 감사예배 및 봉정모임을 갖고 교수정년퇴임을 가졌다.



조치원 세종제일교회 임직감사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조치원 세종제일교회(담임 한준석 목사)는 지난 10월 19일 주일 오후 2시 장로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담임 한준석 목사 사회로 시칠장 신동철 목사가 기도를, 대전

서 노회장 이수연 목사가 "일군 뱃의 모습"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 박성두 안수집사가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와보라!! 기적의 현장으로

찬양치유(무료)시범설명회

주어~!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렘17:14)

주강사 정창윤 목사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총재/웨신총회부흥사회 대표회장)

서울찬양신학연구원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열린찬양교회

02)862-3181

(구로보건소, 구로5동 동사무소 옆 100m)

평안교회(담임 장승현목사) 입당 감사예배

평안교회가 서울에서 당진 봉교리에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신) 경중노회 소속 평안교회(담임 장승현 목사)가 지난 10월 25일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 입당감사예배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총회 부회의록서기 백승대 목사의 기도들, 서울평안교회의 성악가 박경숙 사모의 감미로운 특송과 음악박사인 김재욱 목사(서울평안교회 담임)의 색소폰 연주로 예배가 무르익어갔다. 이어 전 천마산 기도원 원장 표창배 목사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자”는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

둥은 ‘인물기둥’으로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둥으로 평안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말씀을 마쳤다.

격려 사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상임이사 김영배 목사, 증경 총회장 정재규 목사, 개신총회 총회장 윤기환 목사, 한성노회 직전노회장 전현구 목사 등이 각각 권면과 축사를 맡았으며, 끝으로 웨신총회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장승현 목사는 좋은 교회는

“볼 것, 들을 것, 가져 갈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새 희망과 용기를 얻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항상 가정같이 평안하고 인식체가 될 것을 약속하며 기념품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으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본지 대전총청지사 전향희기자



하나선교회 10주년기념 기도 찬양콘서트 가져

암투병 목회자를 돕기 위한 기도찬양콘서트 백주년기념관에서 열어

하나선교회 회장 김상경 목사(하나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지역이 10주년을 맞이했다.

김상경 목사는 11월4일 감사예배 및 구본철희선교사 등 암투병 목회자를 위한 기도찬양콘서트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1부 감사예배, 2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세리임 부부 듀엣, 이평찬목사, 김동국전도사 등 국내 많은 복음성가 가수과 무용단들이 출연 열기가 더했다. 이 자리에서 김 목사는 “하나선교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부족한 중과 선교회를 사랑해서서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본 선교회는 어려운 교회와 국내의 선교를 감당하며 걸어 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또 김목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감사하며 기대로 어긋나지 않는 종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감사예배는 김상경을 감당하며 걸어 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를 위한 통성기도, 정성업목사(은빛교회) 박정화목사 전영춘목사(선교회) 자문,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오명근목사(반송교회) 윤용섭목사 등의 축사와 축하연주, 오현역목사(청량리 노숙자 선교회)와 정기남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 지저스타임즈 대표)의 격려사, 조옥련목사와 김상곤목사(77세 복복 대표회장)의 권면, 황세한목사(열방교회 선교회장)의 기도, 강용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경종 목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제하의 설교로, 김상경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사랑이 죽어서 천국갈 때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부의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며, 이어 “하나선교회에서 기독교센터, 방송국 등 하나님의 기업을 건립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역에 많은 기도와 참여, 사랑과 관심, 홍보를 부탁”했다. 이날 드러진 현금과 그동안 하나선교회에서 준비해온 기금을 모아 암투병 목회자에게 전달하고, 구본철희선교사는 한국복음성가협회 증경회장, 한국레크리에이션 회장으로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아 두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다. 이명숙 목사는 일본선교사로 간암 진단을 받고, 현명철 목사는 시각장애인으로 당뇨성 괴절로 다리가 썩어들어 가고 있으나 병원치료를 뒤로하고 투병 중에 기도도 새삼이 돌아오고 있다. 산동명전도사는 큰 교통사고 후 장애인과 불우이웃을 돕는 가운데 심장대수술을 받고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침실한 도움이 필요 했다.

한국독립교회 목사 사모 영성을 위한 세미나 가져

목회자의 영성회복은 교회가 살고 교인이 사는 것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목사 사모 회복회’로 모여 복음지역을 위한 목회자들의 영적 질적 진보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지난 11월 16일 김경래 목사(21세기 영성훈련원장, 천안동교회)는 1부 “목회자의 영성이 살면 교회가 부흥한다”와 2부 “목회와 신유사역”이란 주제로 대전유성감리교회(유광조 목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김경래 목사는 목회자의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안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느슨해진 목회자의 영성을 재충전하여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목회의 목적이 있음을 역설했다.

목사 사모 회복회 회장 유광조



목사가 사모하는 유성감리교회 여전도회는 매 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세미나를 위해 풍성한 점심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여 참석한 100여명의 목사를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가 이어졌다.

이번 목사 사모 회복회 세미나는 11월 말 ‘현장에 선 목회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김상현 목사(부강교회)의 강의로 하반기의 일정이 모두 마쳐지게 되며, 내년 2009년 3월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목회자 간의 상호협

력을 도우며,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는 목회자로 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는 세미나를 마친 후 회복회의 정기총회로 열여 회장 유광조 목사(유성감리교회) 부회장 정동일 목사(한밭제교회) 감사 차승규 목사(창대장로교회) 총무 이정선 목사(청주대광교회) 서기 정무열 목사, 회계 조용현 목사(푸른조장교회)가 임명되고 회장단을 중심으로 2009년에도 더 나은 섬김과 봉사로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위상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토록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살림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총청지사장 리영수기자

관광과 과학이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 실현”을 위한

유성구민 걷기대회

2008년 11월, 11일(화) 11시 11분 11초 시각 일림 옥외전광판의 눈길을 끄는 가운데 진동규 구청장, 설장수 구의회 의장등 지역인사와 40여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하여 구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구청앞 여론교 하상에서 출발하여 MBC 사옥 지점을 돌아 출발점인 여론교 하상으로 돌아오는 왕복 8Km 천변걷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최한 ‘걸어서 청정유성속으로...’ 걷기대회는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 청정유성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녹색성장도시 청

정유성 실현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로 앞으로 좋은 환경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이제는 유성”, “자꾸자꾸 좋아지는 유성”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인사말씀을 대신하였다.

바람이 약간 불긴하였지만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녹색으로 수놓은 감천변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고 곳곳에 주옥같은 명곡이 흘러나와 참여자들의 눈과 귀를 흥겹게 하였다.

그 밖에도 유성구는 걷기대회 반환지점인 MBC 사옥 앞 하상에서 참가자들에게 빵과 우유, 패셔로 등을 제공하는 한편 걷기 대회가 끝나고 출발점인 여론교 하상에서는 추첨을 통하여 자전거 10대를 경품으로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사랑해도 될까요?”

유리상자 이세준과 함께 하는 기·독·교·문·화·행·사

KAIST 대강당에서 늦은 저녁 10시에 기독교 문화행사가 대전MBC 라디오 프로그램 ‘오후의 발견’의 진행자인 윤지영 아나운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카이스트교회, 대덕교회(이중삼담임), 대덕한빛교회(은종대담임, 김세진 청년부 담임 목사, 대전은누리교회(하용조담임), 늘사랑교회(정승룡담임) 등 6개 교회들과 선교단체, 카이스트 대학 내의 ‘카이스트 복음화 협의회’ 동아리(회장 김영훈)와 함께 연합하여 기독교 문화를 일반 대학 캠퍼스를 빌려 공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이 행사는 학교생활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크리스찬 문화 공연에 쉽게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자리 마련과 아울러 연구단체에서 근무 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한 것으로 늦은 밤에 개최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독교 문

화를 체험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층 객석을 가득 채워 8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감미로운 음악과 정갈한 토크진행으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았다. 첫 무대는 여섯명의 남성들로 구성된 D-라이브의 다이내믹하고 감미로운 아카펠라 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이세준의 무대공연과 윤지영 아나운서와 가수 띠따함이 오가는 사랑의 토크가 이어졌다. 추후 축이 준비한 붉은 장미꽃을 참여한 모든 관객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즐거웠던 짧은 가을밤의 음악회가 아쉬움과 함께 막이 내려졌다.

대전 전체를 복음화 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개최한 기독교 문화 공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 속으로 기독교의 사랑이 소리 없이 녹아 들어가기에 기대해 본다.

대전총청지사장 리영수기자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주)금호상조

1566-4428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장례절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 준비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반형	20,000×120회=2,400,000원
고급형	30,000×100회=3,000,000원
최고급형	40,000×90회=3,600,000원
VIP형	50,000×100회=5,000,000원



직원모집			
직책	인원	자격	보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장	0명	무경험자 가능 30~50대 (보험경력자 교수익)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조설계사	0명		기본급(출근비)+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지사	0명	회사규정 심사	영업비+관리수수료+각종 혜택 등 지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



(주)금호상조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 가입고객 잔산입력 금융결제원 고객탕증거래 신청
- (주)금호상조에서 및 약관발급(우편발송 7-15일 소요)
- 월불입금×100회=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월불입금×120회=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임종시 (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국 1566-4428
- 상황접수 회원조회 고인성명 및 병원확인
-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 장례용품 제공, 고인 사신수습 및 빈소 마련, 유족과 협의 종료, 기종에 따라서 알맞는 행사 진행
- 염습 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 발인제 시간에 맞추어 장의차 배치, 장지로 출발 안내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앞선
- 묘지이상
- 식물 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역인부
- 여자일손
- 꽃상여
- 화환
- 도시락 등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교계 지도자들, “대북지원 즉각 재개하라” 호소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교인의 입장’ 발표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뜻을 모아 정부에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은 11월 21일 오전 10시 한국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를 청와대과 국회,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 성명서에는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영철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조동진 목사(조동진 선교연구원), 조성기 목사(교단장협의회 사무총

장), 최희범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한명수 목사(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양영식 학장(한기총 통일선교대학) 등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교계 지도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또 기독교통일학회(최도훈 교수), 부흥한국교회(고형원 대표), 재단법인 모음(김형식 목사), 평화나눔재단(김병로 박사), 평화한국(허문영 대표), 한국기독교 통일포럼(박영환 교수) 등의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에 우리 기독교인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일치 사상에 입각하여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 화합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계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실행해왔다고 천명해 온 만큼, 북한

의 선지원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추운 겨울의 문턱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의 1%를 별도 배정하여, 이를 인도적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 기금으로 사용할 것도 제안할 것을 밝혔다.

이날 교계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시급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및 평화와 통일로 다가설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내막을 설명했다.

예장 웨신총회 남부노회 제47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남부노회 제47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27일(월) 전남 목포시 산정동 새시랑교회(담임 박천위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김성남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김상호 목사 기도와 공규봉 목사가 사시기 37-9절을 봉독, “누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인가?”라는 제의의 말씀을 노회장 조광표 목사가 전했다. 이어 합심하여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총회와 노회, 3.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경노회장김재원 목사 축도로 마

쳤다.

2부 박천위 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고 공규봉 목사 기도와 박병식 장로, 라종안 목사가 분반 분별 위원을 맡았다.

이어 3부 회무처리가 시작되고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가 등단 제47회 성노회를 주관하는 노회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하를 전하고 헌신을 다하여 노회원 여러분과 총회를 섬겨나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가 있었으며 현 노회장 조광표 목사를 연임시켰다.

지저스타임즈

jstimes.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정기간 목사
고문: 임철환 목사(길보리교회), 최중립 목사(도곡교회), 김중현 목사(동산교회)
이사장: 정영준 목사
상임이사: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현영우 목사(임마누엘교회), 권세은 목사(주전성교회), 박복수 목사(조치원장로교회), 정재규 목사(대석교회), 오종성 목사(홍성제일교회), 임필소 장로(주 예수회), 정영기 목사(서울중앙교회), 박남수 목사(시온교회), 김동학 목사(소원교회), 조광표 목사(목포민남교회), 장한국 목사, 이종규 목사, 김병호 목사(열두광주교회), 김태국 목사(권태국 치과), 서명림 목사(공덕교회), 임원택 목사(노인교회), 전현규 목사(세계로교회), 정민호(금호상조회), 배근욱(간척설계사), 김민수(회사원), 손우전 목사(회사원), 권관국 목사(두란노교회), 김상익 목사(신들교회)

대전총청지사지사장: 라영수 목사 **기자:** 전향희 사모
대전지사이사장: 박양우 목사(대전경향청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충청지사이사장: 이기선 목사(양문교회)
논설위원: 장승현 목사(당진 평안교회) **부국장:** 최창희 목사(서산갈산장로교회)
해외지사: 우간다 지사: 김기일 선교사, **호주 지사:**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 장영진 목사, **일본 지사:** 전동욱 목사
태국 지사: 전승주 선교사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향공제회12층 전관(주)에두알 (내) 지저스타임즈
인터넷신문발행증 WWW.CPJ.KR (E-mail : webmaster@cpj.kr)
전화 : 011-468-6574 / tel. 070-8230-0036, 02741-0031 fax. 02)763-0221

KTF-SHOW **MOTIVEBIZ** (주)모티브비즈

무점포대리점사업자모집 010-2872-0496

▶ 소비자에게 검증된 대중적 브랜드
▶ 소비자 및 회원에게 전혀 부담과 피해가 없는 절대 필요상품
▶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고 사업자로 전환된다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첨단상품
▶ 성공을 위한 모든 토임의 완벽한 조화

▶ 제품(KTF+마케팅(검증)·합법적(시장변화)·기대(전선))
▶ IMT 2000 3G 국초기 시장
▶ KTF와 전략적 제휴로 고객까지 창출
▶ KTF와 윈-윈(Win-Win)에 의한 공동목표달성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위기업으로 발돋움

금감원장은 www.motivebiz.co.kr에서 확인

제7회 한기총 문화예술 선교대상 후보 접수

-12월 1일까지...12월 4일
‘한국교회의 밤’에서 시상식

기독교 문화와 예술선교에 공헌한 사역자에게 수여되는 ‘한기총 문화 예술선교대상’ 후보를 12월 1일까지 추천받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임신형 목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윤항기 목사)는 전제회의를 갖고 ‘제7회 한기총 문화예술선교대상’ 시상식을 12월 4일 예정된 ‘한국교회의 밤’ 행사시 갖기로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2월 1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후보추천 요건은 기독교 문화, 예술 부문으로 선교에 기여한 공이 있어야 하며, 향촌직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기총 임원 또는 회원 교단장·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청양식은 한기총 홈페이지(http://ack.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한기총 문화예술선교대상’은 2002년 제정되었으며 제1회 수상자로 월드컵 축구의 성공적 개최와 부산아시아안개임 등의 성과를 감안하여 ‘체육선교부문’의 혈필루아축구단 임영무 목사, LG정유배구단의 감독 김철용 장로를, 제2회 수상자로 ‘예술선교부문의 한국비디오선교회 사무총장 김병삼 장로와 진흥아트홀 관장 유병애 권사를, 제3회 수상자로 ‘문화선교부문’의 종환선교 규장 회장 유은학 장로와 기독교민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최광열 장로 그리고 낮은올타리 대표 신상인 선교사를, 제4회 수상자로 ‘예술공연부문’의 한국기독교 영화예술인선교회 회장 이기원 장로와 극단 예맥 대표 임동진 목사를, 제5회 수상자로 역시종속회가 김학수 장로와 국제열린문화교류회 회장 권병기 목사를, 제6회 수상자로 진흥문화(주) 박경진 장로와 서예가 홍덕선 장로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문의 : ☎741-2782).

진짜정신력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체력은 강한테 정신력이 약하다.

죽어라 뛰어다니는 것이 정신력이 아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진짜 정신력이다.”

이렇게 지적한 히딩크는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진정한 정신력을 키워줌으로써,

결국 월드컵 4강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를 가리켜 4강 신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자아가 반영된 것이라 여깁니다.

신화라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어찌다 한번 이루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4강 신화가 아니라, 4강 실력이라고 생각을 바꿀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을 쌓아 세계적 축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의 외침처럼 “Yes, We can!”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을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볼소심하듯인 조심하면 화가 복이 되어 찾아옵니다. <연>

희망의 재할센타 “해 뜨는 집”

희망의 재할센타 “해 뜨는 집”(시설장 김광웅 목사)은 지난 10월 25일 겨울나기 새 비닐하우스를 씌우기 위해 지역(전)의 김리교회 청장년부-한옥전 목사사무. 오동성 회장 외과 사회단체(삼성SDI PDP 사업부 김방형 회장 외 “여가동무 봉사팀”)의 협력하는 모습을 찾아보며, 개인주의와 분과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에 작은 ‘식구 공동체’를 이룰고 가시는 김광웅 목사를 만났다.

해 뜨는 집의 시설장 김광웅 목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신 말씀을 따라 소외계층을 위해 기도하며 생활을 하던 중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1996년 4월 천안시 풍세면 두남리

22-4번지에 복지선교타운을 설립하면서 장애우와 함께 하는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 위치한 충남 연기군 전의면 노곡리 148번지는 2004년 12월 28일에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김 목사는 현재 생활인(장애우) 1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기자가 찾았을 때도 겨울철 열풍 준비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비닐은 철거하고 새 비닐하우스로 단장한 상태였으며 70평 남짓 하는 곳에 허브를 심고 있었다. 허브를 재배함으로써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우며 지역사회와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더

동체로 인해 정신적 안정을 이룸으로 일상생활의 기초능력 향상과 재활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김광웅 목사의 추구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기도 하다.

김광웅 목사는 눈가의 해맑은 미소가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다. 그만큼 생활인(장애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음이 가슴깊이 느껴졌다. 가을이라기보다는 초겨울을 연상케 하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 어느새 해가 서산을 넘어 어두운데도 모두가 한마음이 된 모습이 허브 향만큼이나 향기로웠다. 높은 빌딩 숲에서 느낄 수 없는 흙과 먼지로 덮인 넓은 들간의 삭막한 속에서 “해 뜨는 집”(희망) 한 자락을 바라본다.

본지 대전총청지사 전향희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경목위원회



위원장 송양현
상임총무 박양우

중부경찰서

실장 김부원

총무 배종화

동부경찰서

실장 송양현

총무 장태식

둔산경찰서

실장 오정호

총무 조경대

서부경찰서

실장 김홍정

총무 양승섭

북부경찰서

실장 백영장

총무 임제택

대전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박양우

대전*충남지저스타임즈

지사장 라영수

취재부장 전향희



담임목사 조 광 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축성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남부노회 제 47회 정기 성노회를 축하합니다.

노회장 조광표목사 외 노회원일동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택 : 061)274-1808 / 핸드폰 : 011-631-1977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 시인, 목회학박사

저는 풍성한 가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 중동 이슬람권 선교대회 주강사로 타키에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전 세계로 향하는 복음의 관문이 되었던 타키가 지금은 우상과 거짓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으며 패해와 절망의 땅이었지만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의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역사 의식과 교회론에 관한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며 새에덴교회 또한 그런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삶속에 새 힘과 지혜를 심는 메시지

목회자의 사랑과 전도의 열심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부 지역 목회자가 새에덴교회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데려온 전도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고 어찌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진정성과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을 짓밟는 말을 하고 다니는지 가슴을 치며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많이 빼온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줄까?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분들이 새에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히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책임 질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잘못하면 그 모든 실언과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갈 텐데 왜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일 년에 한 두 차례씩 해외로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서 교회의 평신도사역자들도 훈련받고 교회의 방향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을 완전 해석하고 곡해하여 한 말 같았습니다. 물론 전도 우수자들도 어찌다가 한번씩 가기도 하지만 주로 해외여행보다는 교회에서 상을 주어 격려합니다. 그러나 결코 별도로 전도우수자들을 해외여행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내올까? 물론 신도시 지역이나 보니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성도들이 와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지역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교역자 회의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여 말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시에는 벌점을 준다고 교역자들에게 엄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광고를 통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이나 제대로 알고 말을 하고 다니는지 마음의 섬세함과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새에덴의 성도들이라면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철저한 양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확고한 리더십과 신념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육시스템이 정착이 잘 되었습니다. 요즘 무슨 이단들 때문에 힘을 아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양육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서 다 걸증이 되고 결코 이단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에덴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회의 이름과 명성으로만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

다. 복음의 순교자가 된다는 정신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의 열심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 너무도 특출하여 가끔 사실이 와전되고 잘못 오해되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게 되는지 몰라도 새에덴교회는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가 될 것입니다. 이 광채 저 광채 대면서 전도를 안 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타키, 유럽이 왜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아성을 잃고 전도를 안 하니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에덴교회 성도들을 제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해외여행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고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눈물겨운 사랑과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전도의 열심을 그토록 왜곡하고 비화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새에덴교회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섬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새에덴교회는 더욱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결국 두 감독체제로 돌아서

적법성을 주장하는 양측 교수철, 김국도 목사

기감 파행 운영 타협점 맥구름...교회와 세인들 그들을 보고 있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우려했던 두 감독회장 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총회가 출입봉제로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면서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총회 의장인 신경하 감독회장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총회 개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국도 목사측 사법들이 신 감독 출입을 완전 봉쇄, 끝내 총회진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순차적으로 우세한 김국도 목사측의 막강한 방해로 극복하지 못했다. 신 감독회장은 총회장소 옆 건물계단에서 감리교 제28회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모든 책임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사정하여 자격 없는 감독회장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다"며 "향후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보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 당선자로 교수철 목사(홍석동 제일교회를 임명하고 자기 감독회장으로 선포했다.

반면 김국도牧사는 총회장소에서 김승연 중부연회 감독이 임시 사회자로 총회를 열고, 장동주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김국도 목사들 제28회 감독회장 당선자로 선포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불법을 소리치는 총대들이 있었지만 김국도 목사측의 제지로 회의는 계속 진행됐으며, 점심시간 후 1시간여 회의를 진행하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연기했다.

김 목사측은 "감리교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등록한 뒤 개최하고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이날 총회장에는 1494명의 총회 대표가운데 1252명이 등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총회장 에 참석한 총대수는 960명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수철 목사측은 "감독회장 유고시에 감독회장이 지명한 감독이나 감독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지만 신 감독회장이 감금된 상황에서 일부 세력이 자의적 의 정치 신념을 따르고 있다"면서 하원의 적극적인 영향력을 정제하면서 자신의 조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며 지난 3일부터 연수원으로 기도회를 떠난 상태다. 이 자리에는 교수철 목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리교 회관 총회본부 16층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김국도 목사측도 지난 3일 총회본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현재, 직원들의 업무복귀를 명령한 상태다. 김국도 목사측은 본부측 직원들이 김 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얼어붙은 두 감리교단 결국

두명의 감독회장이 탄생한 감리교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4일 현재 교수철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교본부는 직원 50여명은 연수원에서 기도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며, 김국도 목사측은 감리교본부 진입을 계속 시도하며, 직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해임까지 불사하겠다고 엄을장을 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태풍의 눈처럼 교묘한 사태지만 결국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 할 상황.

교단 내에서는 "이러다 교단이 갈리는 것 아니냐", "감리교 명예가 실추

했다"며 조유의 사태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시회법으로 매듭을 풀 전망이지만, 교단이 갈라지는 아픔도 발생할 수 있어 교단관계자들은 "최악의 경우라도 교단이 분열되는 경우는 막자"는 목소리를, 뿐만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인들의 보는 눈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역시 교단지는 못믿어"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박영현 편집국장이 김국도 목사측 감리교 본부 행정실장 서리로 임명됐다. 결국 그동안 교단내 지적됐던 교단지의 김국도 목사의 편향성 시비에 힘을 실어 준 결과다. 그동안 교단지는 줄기차게 김 목사의 '사랑(?)을 밝혀 왔었다. 신경하 감독회장까지 경고할 정도로 교단지의 편향성이 심각할 정도.

모 교단 인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교단지가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정말 교단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박 편집국장이 앞으로 4년 뒤(감독회장 임기에도 그렇게 행복할지 궁금하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美 주지사, 거리에서 기도한 경찰관 퇴임 중용 "논란"

미국의 한 주지사가 공무원의 종교 행위를 대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본보기로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 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해직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퇴임을 통지받은 경찰관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경찰서 내에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chaplain)이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식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지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과연 대중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기독교와 가정을 중시하는 시민단체들은 정제와 기업에 일부에서 기독교의 언어나 여러 기념일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스뉴스라이프>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인 팀 케인은 주 산하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5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주지사까지 직접 공권력의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들 공무원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특정 종교가 미국 사회에서 일반화되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이유에서이다.

주지사의 이런 조치로 버지니아주 경찰청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지시사항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스티븐 플래허티 버지니아주 경찰청장은 강경한 종교 정책을 권고하면서 특정 종교 행위를 가능하면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접적으로 퇴임을 요구받은 5명의 경찰 공무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분개하며 주지사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의 종교행위가 과연 공공성과 종교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가를 두고 양측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정치인들이 경찰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찰스 카리코 하원의원과 그의 동료들은 주지사의 역할과 행동이 공무원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다면서 복직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신념과 종교 교리에 맞게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종교 관련 보호 법안을 따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허핑턴 포스트>의 21일 기사를 보면, 팀 케인 주지사는 20일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정치인이 행정 관료에게 무례할 정도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직분을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고 나온다.

팀 케인 주지사는 "카리코 의원 등 버지니아의 하원에서 이러한 정치적 술수로 나를 보복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이들은 나의 정치 신념을 따르고 있다"면서 하원의 적극적인 영향력을 정제하면서 자신의 조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풍성한교회 매주일 예배안내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 교회

표어: 지킴자 / 목표: 교회 건축

새벽예배	매일새벽 5시 30분	기도회	금요일 9시
주일 낮	오전 11시	교회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학생회	주일 오후 12시 30분
수요일 밤	저녁 7시 30분	청년회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아다내게로 오라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절)

☐ 담임: 장사명 목사

☐ 반주: 장선이선생

교회주소: 339-810 충남연기군 서면월하3리 664-17

교회전화: (041) 862-1438 팩스 (041) 862-1437 H.P018-426-1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심장로교회

주일에배안내

☐ 금년표어: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

주일 낮 : 오전 11시
주일 오후 : 오후 2시
수요기도 :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 새벽 5시 30분
목요찬양 : 오후 8시 30분
유·초등부 : (토)오후 4시 30분
대학·청년부 : (토)오후 6시

☐ 원로목사: 전영춘
☐ 담임목사: 전봉화
☐ 반주: 김민정

기도

1. 교회부흥
2. 성령충만
3. 말씀충만
4. 사랑충만
5. 은혜충만

143-15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6번지

☎.02)463-0288

■ 가정예배 ■

권세능 목사
평택주천성교회담임,
본지 상임이사오늘의 예배 / 고후9:6-15
감사의 생활 찬송460장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자세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 보면 그는 언제나 제일 먼저 문안을 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 그 생활 자체가 하나의 감사입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물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예배 / 행16:19-32
찬양의 능력 찬송44장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래의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노래는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흥겨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업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리는 깊은 옥에서 절망 중에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자세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 요4:23-24절
예배의 생활 찬송14장

기독교의 신앙 목표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worship)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3대 정신요소는 ① 항상 기뻐하라 ② 쉬지 말고 기도하라 ③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은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에 떨게 하는 교회에는 이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곧 감사요, 감사는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예배 / 잠3:1-10절
하나님을 공경함시다 찬송404장

로벨라가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벨라는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십일조 생활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20센트씩 받은 용돈에서도 반드시 십일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둘째, 교회의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벨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제나 교회에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째, 교회를 다니며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 엡1:3

영적인 복 거룩한 복 찬송40장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형(無形)세계와 유형(有形)세계를 창조 하셨습니다.

보이는 물질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가 있습니다. 복도 그러합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더욱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영적인 복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은 죄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복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복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복이요 천사들이 섬기는 복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이요 주님은혜로 주신 성스러운 복들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예배 / 요 5:45-47절

준비하는 신앙 찬송220장

11월이 되면 겨울을 대비해서 감장도 담그고 겨울을 대비하여 월동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임시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준비된 자들이 성공합니다.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의 질책과 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 마25:14-30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찬송260장

부자들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습관 중에 부지런함은 기본입니다.

현대인은 '게으름'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밤 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낮에는 잠자기 밤에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밤에 일어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입니다. 범사에 부지런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근로'와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며 복인지를 가르쳐 주신 고귀한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로'의 소중함을 가르침으로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달란트 받은 일꾼과 다섯 달란트 받은 일꾼처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값지게 만드는 10가지

1.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라.
2.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누라.
3. 거저말로 위기를 넘기기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라.
4.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라.
5.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하라.
6.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즐겁게 하라.
7. 남이 이기적으로 나를 대하더라도 가까이 배물어라.
8.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
9. 칭찬을 들었을 때 겸손하라.
10.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라.

성도들 대강절, 얼마나 알고 있나?
회개·섬김·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할 때

▲ 대강절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 지난달 30일 마지막 주일 대강절 주간을 맞았다. 대강절은 강림절(Advent)로도 불리고 있다. 대강절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며, 성탄절로부터 네 번째 전 주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4일 성탄절 직전까지 해당된다.

또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파하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뜻 깊은 절기 기간이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강절은 과거의 죄를 회회하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다짐하는 예전으로서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대강절과 관련된 풍습 가운데 이런 의미도 있다. 화환 만들기, 촛불 밝히기, 구유 만들기 등의 행사가 있는데 화환과 촛불은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 또한 한 주에 하나씩 켜는 4개의 초는 네 주일을 상징하고 있다. 대강절 화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 촛불은 빛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구유 만들기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8년은 유난히 한국교회에게 있어 아픔과 혼란의 한해였다. 이번 대강절을 통해 한국교회는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한다.

절저한 자기반성과 회개하기

현재 한국교회는 일부 교계지도자들로부터 불변과 반목으로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교회 안팎으로 비판과 질타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조차 기독교의 본질에 입각한 분명한 예언자적 목소리가 담겨진 실정이다. 게다가 기독교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미디어의 끊임없는 공세와 더불어 교회재정 관리 소홀 및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실 등 한국교회는 위기 국면에 봉착하면서 사회 안에서의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 침체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절저한 자기반성과 회개하기



한 외부적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교회의 분열, 기복주의, 물광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권력지향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맹목주의, 권위주의, 성직주의, 열광주의, 신비주의, 도피주의, 사회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등 내부적 문제들에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이번 대강절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 존재에 대한 비판과 자기반성을 통해 회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모습으로 한국사회와 국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올바른 존재와 위상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으로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는 사회 안에서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연합의 토대 위에 교류와 소통과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한다.

최일도목사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성의 회복의 길이며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며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삶의 핵심은 섬김과 나눔의 삶"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한국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복음전파의 사명은 지역사회를 섬김으로써 시작된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는 옹크리지 말고 도리어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 사회가 외면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사회의 냉담한 반응과 사회로부터 지적당한 수치들과 부끄러움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는 물론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통한 신앙회복으로 돌아서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또한 대강절 기간에 성도들이 경건, 회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도들이 성탄 분위기에 휩쓸려 대강절이 갖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에 맞는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도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대강절에 특별기도회를 마련한다.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릴레이기도회, 아침기도회 등 대강절 기간을 통해 개인, 가정, 교회, 나라를 막론하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 평강을 찾으며, 새로운 한해를 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회자는 이런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을 재점검하고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강절을 바로 알아 대강절 첫 주부터 보라색 초를 한 개씩 켜는 것으로 성탄을 장식하듯, 대강절이 지난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십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장식도 보라색(자색)으로 준비하고 과거의 죄를 청결하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다짐할 수 있도록 영적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목회자들은 값없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우고 화려한 교회 장식을 피하면서 경건과 회개에 힘쓰도록 하자.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인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다. 회개와 경건의 모습으로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간이다.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절저히 잘못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마라나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지금껏 거졌던 오만함과 간악한 마음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다.

예장웨신총회 한서노회 정기노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한서노회(노회장 이재갑 목사)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및 교회(담임 이영종 목사)에서 '부활의 소망'이란 주제 아래 성도회가 개최되어 서기 이승표 목사(한울타리

교회)가 사회를 맡고 부노회장 하종우 목사(바울교회)가 기도를, 부서기 김기출 목사(평강교회)가 성경봉독을, 노회장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가 "부활의 소망"이란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찬송 539장을 부르며 봉헌을 하고 봉기도에 회개 이영형 목사(인천회막교회)가, 노회장 이재갑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중경노회장 이영종 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어지고 3부 회무절리에 들어가 안건 토의와 내외장소를 정하고 서기 이승표 목사 사회로 노회장 이재갑 목사가 설교와 축도로 마쳤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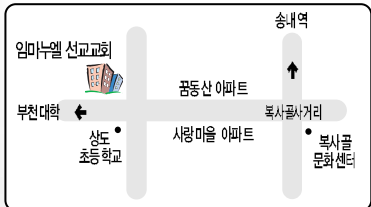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금요일예배: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축 예장웨신총회 한서노회 정기노회



축 웨신총회 한서노회 정기노회

성노회를 축하드립니다.

—한서노회장 이재갑 목사 외 임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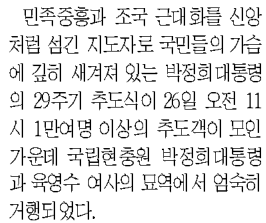
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노회장 / 이재갑 목사 02)938-3521 016) 228-3521

서기 / 이승표 목사 070)7548-7993 010)3448-1225

박정희 대통령 29주기 추도식

민족중흥과 조국 근대화를 신앙처럼 섬긴 지도자 박정희!



▲ 우측으로부터 박근혜 전대표, 박지만, 박근령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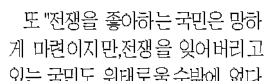
▲ 김진식 추도위원회 위원장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등 유가족과 박준홍 녹색회 중앙회 총재, 김진식 추도위원회 위원장,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김용환 전 장관, 윤주영 전 장관, 서정원 전박연대소속 국회의원, 김무성 홍사덕 의원 등 천백여 30여명 등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추도식에서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각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나고 우리 후손들이 물을 때 우리는 서슴치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장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땀땀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 우측으로부터 박근혜 전대표, 박지만, 박근령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다.



▲ 김진식 추도위원회 위원장이 식사를 하고 있다.

또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지만, 전쟁을 잊어버리고 있는 국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각하께서는 만주군관학교 시절, 산배와 동료들 앞에서 독립군의 군가를 당당히 부르실 만큼, 일제로부터 강점 당한 조국의 광복과 독립의 꿈을 키우신 애국 혼의 소유자셨다"라고 홀로했다.



▲ 김무성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또 일부 전복 좌파들이 재평가란 미명하에 각하의 위대한 업적을 훼손하려 선동과 모략을 하고 있지만 그리

나 소수는 일순 속일 수 있지만 다수는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면, 서진실 앞에서 거짓은 아첨 이슬처럼 사라져 갈 것으로 확실하다고 말했다.



▲ 박준홍 녹색회 중앙회총재, 박종재 누님이 앉아 있다.

박세직 회장은 이어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참으로 기쁜 소식은 큰 영에 박근혜 전 대표가 각하의 분신으로서 선진 일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지도자로서 이 나라 정치계의 거목으로 성장했고 각하의 유업인 조국 근대화를 계승하여 선진 일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지도자로서 범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회고하는 국민 모두와 함께 삼가 각하 내외분의 명복을 빌다면서 추도사를 이어갔다.

박교서기자

서세원-서정희 부부 '남몰래 최진실 돕고 있다'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남몰래 고(故) 최진실 유족의 슬픔을 나누고 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최진실의 어머니와 동생 최진영, 두 자녀가 머물고 있는 집을 몇 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들은 기도로서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있다. 서세원의 한 측근은 "서세원은 생전 최진실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하며 각별한 선호배의 우정을 이어왔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얼마 전 최진실이 생전 다니던 강남중앙침

례교회에 간증 활동에 참여했다. 서세원은 이날 간증 활동 도중 최진실의 유족을 만난 뒤 곧바로 자택을 찾아 남은 이들의 슬픔을 어루만졌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11일 오전 열렸던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에도 손을 보았다. 조성민과의 친권분쟁에 고통을 받는 유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돕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 측근은 "서세원은 최진실의 죽음을 마친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안타까워했다. 유족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며 시간을 내 부부가 함께 자택을 찾아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드리 헵번처럼! '최진실 재단' 설립된다.

지인들 의견논의... 사비 모아 '장학사업·불우이웃돕기' 추진

고(故) 최진실의 측근들이 19일 '최진실 재단'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생전 자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최진실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사업과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재단 운용에 필요한 자금은 이들의 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진실의 한 측근은 "최진실이 받은 팬들의 사랑을 고인을 대신해 지인들이 대신 갖기 위해서 재단 설립을 할 계획이다. 아직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족과 상의해 시간을 두고 최진실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실 재단'은 배우의 이름을 따서 세운 오드리 헵번 재단처럼 운영이 될 전망이다. 오드리 헵번 재단은 어려운 세계인들을 돕는 봉사단체다. '최진실 재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 재단'은 최진실이 떠난지 49일 지인들이 모임을 갖고 논의로 구체화됐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에서 유족, 친지, 팬 등 60여 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재단도 영하 10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최진실의 묘역에 모였다.

어머니 정 모씨는 여전히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바보 같이 왜 먼저 갔나"라며 묘를 붙잡고 통곡, 살이 에

는 듯한 갈바람 속에 한참을 엎드려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동생 최진영 역시 딸없이 누나의 묘를 바라보다 울음을 터트렸다. 최진실의 두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최진실의 친구들도 먼저 떠난 친구를 보기 위해 자리했다. 최화정 이영자 정선희 송윤아 신애 김민종 조연우 등은 유족들과 함께 조촐한 예배를 드렸다.

영화 <세이빙 마이 라이프>를 촬영

중인 송윤아는 "전날 밤샘 촬영을 하느라 한숨도 못자고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예배를 주도한 이영자는 최진실의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 최진영과 함께 자리를 지켜준 취재진들에게 인사하며 "우리 친구 진실이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친권 갈등 중인 전남편 조성민은 보이지 않았다. 조성민은 세간의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성민은 전날 오전 일찍 묘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여기 있는 모두가 어머니의 딸이다. 최진실 씨를 대신할 수 없지만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들은 또 취재진을 향해 "조성민의 친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의무도 하지 않고 권리만 외치는 조성민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 예상보다 심각?...마이너스 전망 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내 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자주 낮아지고 있다. 급기야 UBS증권이 21일 외환위기에 처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경기침체가 더욱 혹독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정화 연구원은 "한국 수출과 내수 동반 둔화 현상에 주목해

42%에서 22%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는 4.3→3.9%, 메릴린치는 4.0→1.5%로 각각 낮췄다.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2%,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4%로 내렸다.

대체로 국내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 1~2%를 예상한 외국계 기관에 비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국내 기관과 외국계 기관 간에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너희는 벌써 범죄지 말지이다 자리에 누워 침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이다(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이다"(시편 4:4~5절).

국내외 기관 전망치 계속 낮춰 “마이너스 성장은 최악 시나리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 같다"며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주력 경제를 이끌어온 한국이 내년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자산가치 효과도 떨어지므로 민간 소비도 주는 한편 설비 투자 규모도 축소돼 내수 둔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 실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내수와 수출 동반침체가 보이던 지난해 들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영춘의 예화

죽은 교회 장례식 이야기



미국에 한 침례교회 이야기이다. 지금은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목사님이 부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해도 좀처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다.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다 해보았지만 있는 교인들마저 떠나들며 떠나가고 교회는 마침내 문을 닫게 되었다.

목사님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죽었으니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고 지역 신문에 사연을 내고 광고를 했다. 그리고 교인들 집집마다 부고장을 보냈다. 교회 장례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왔다.

목사님은 큰 관을 교회 앞마당에 놓았다. "이제 곧 교회 장례식을 하겠으니 마지막으로

죽은 교회를 볼 사람은 관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장례식을 마치면 다시는 교회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장난끼 어린 태도로 하죽 하죽 웃으며 관속을 들어가 보았다. 관 바깥에는 커다란 거울을 깔아놓았다. 죽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하고 들어가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굳어지며 장난끼 어린 얼굴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교회가 죽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죽은 것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며 교회 죽은 것의 장례식을 하지 말고 살리는 예식을 하십시오. 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한다.

본지 전영춘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본지기지 및 지시모집

□ 기 자 : 약간명
□ 광고국 : 약간명
□ 학 력 : 대졸(고졸)
□ 자 격 : 세례 교인 우대
□ 전국지사

본사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졸업증명서
- 사진(여권) 3매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 12층
문의) 02)741-0031/011-468-6574
070-8230-0032/02)407-6574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곳!
나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 설 교 집 최소수량 : 500권

교정 교열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전문 교정인력과 신학전문 감수위원이 있어 주일 설교원고만 주시면 설교집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 교회신문

- 해당교회에 맞는 기획과 원고아이템을 제공
-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과 이미지를 다량확보
- 교회홍보와 소식지, 성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아이템 교회신문 지금 시작하세요.

나래이미지

Tel. 031)501-6713
Fax. 031)501-6773
H · P 010-2872-0496

성경적상담과 기독교상담 (2)



김주원 박사

현재 한국성경상담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각종 중독에 관한 현장사역을 하고 있다. 미국국제성경적상담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의 한국멘토로 사역하며, AFIM의 한국대표로 있고, 알코올중독전문사역교회 새문교회에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http://www.biblicalcounseling.co.kr)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 전이후 2000년의 역사속에서 심리치유나 내적치유 혹은 정신치유라는 말이 없었어도 충분히 교회로서의 기능과 변화하는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 이제 막 150년의 역사를 넘긴 심리학이나 기타의 학문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비교하고 성도들을 노략질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기독교상담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만연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도전을 받아 왔다. 현대 교회사에 있어서 큰 도전이 상담분야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심리학적인 분야의 도전이라면 사실 이러한 도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이 심리학이나 기독교상담에 관한 경고의 글이나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시도를 때문에 고 통을 당해야 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믿고 사역하는 성경적상담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속에서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성중독, 게임이나 도박중독 등등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모두 다 그러한 것들은 질병의 문제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일수록(본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기독교상담자]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에서 상담을 받은 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상담자들]이나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정신과의사들이 가르쳐놓은 것을 확실히 믿고 나름대로 만든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강한 거부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변화의 기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족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알코올, 도박, 성중독, 오락, 마약 등등]과 같은 것들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단호하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범하는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상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심리학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질병의 문제나 장애의 문제로 분류하여 말하고 상담하고 있다.

로마서 6:4-7에서 바울은 우리의 죄의 상태에 대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했던 부분들이 결코 질병의 문제나 장애의 문제들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죄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들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박이나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9-11]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약속과 선언의 말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합니 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동성애자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어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의 말씀을 분명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격에 겨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극심한 죄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이 말하는 정신질환이나 마음의 내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잘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소망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 보다는 징계나 책망 혹은 깊은 어두움에 관한 것들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하고 내적치유 혹은 마음의 치유등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심리학적인 테크닉의 변형인 최면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지 마음이 두근거리기만 하다.

흔히들 강단에서 전파되어지고 외치는 말씀들 .. “능력의 하나님, 사 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영혼을 죽이는 것을 막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주일이나 예배시간마다 외쳐지는 자신 있고 능력 있고 확신 있는 말씀을 준비한 많은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심리상담 가들이나 정신과의사들 혹은 기독교상담자에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만다. 비단 말길 뿐만 아니라 목사 스스로 자신의 양을 이리 굴속에 던져 놓고 외치는 절외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잘 일을 잘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한다.

The Jesus Times
www.cpj.kr

금융위기 한파에...얼어붙는 실물경기

한국경제 현재 · 미래 빨간불..경기선행지수 하락

한 · 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금융시장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얼어붙고 있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31일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경제지표를 봐도 경기 침체는 확연히 드러난다. 채고는 늘고 생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급로 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자 정부가 나설 때지만 '벌날'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침체의 긴 터널에 들어와서 한참 진행 중이다. 아직 끝이 언제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내외환(內憂外患)이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내수 경기는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채감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BI)는 65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업들은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 염두를 못내고 있다. 가계 사정도 마찬가지다. 임금은 오를 기미가 없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치솟는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역(逆)자산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 들어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갈수록 하락세다. 소비 위축→기업이익 감소→투자 및 고용 감소→소비 위축'의 악순환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뒤를 내다봐도 답이 안 나온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소비자의 지갑이 닫혔고,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22.5%)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4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 확대, 감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조기 예산 집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은 줄고 채고는 늘어나는 반면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전형적인 불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가속화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포함한 경기 침체 리스크를 흡수하기엔 정부 정책이 아직 역부족"이라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경기부양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제공

"한국교회 고난과 시련은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기총 · NCKK, 신임교단장 · 단체장 · 총무 취임축하예배 드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임교단장 · 단체장 · 총무 취임축하예배가 한기총과 NCKK 공동주최로 드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 목사)는 11월 18일(화)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소속 신임교단장과 총무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8 신임 교단장 · 단체장 · 총무 취임축하예배>를 드렸다.

전병호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이응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대표기도)와 엄신형 목사와 김삼환 목사의 환영사 후 김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가 '정상위에 부는 바람'(요기 1:1-3, 고린도전서 4:1-2)을 제목으



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고통이 있다면 이것이 변장하고 온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기총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가 신임교단장 · 단체장 · 총무를 대표해 인사한 후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와 권오성 목사(NCKK 총무)가 각각 한기총과 NCKK

를 소개했다.

이 날 예배에는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이 참석해 축하사했으며 김경철 장로(CTS기독교TV 사장), 김상길 목사(국민일보 상무), 박용수 장로(CBS기독교방송 TV본부장)가 최병남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전병호 목사, 임중수 목사(예장

고신 사무총장)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이 날 예배에는 한기총 회원 63개교단과 22개 단체 및 NCKK 8개교단과 10개 유관기관의 지도자들 및 양가구 임원 등이 참여했으며 국민일보 CBS CTS 극동방송이 후원했다. 한기총과 NCKK는 2006년부터 신임 교단장 · 단체장 · 총무 취임축하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경제를 알아야 행복한 미래가 열린다.

정지사 청주 풍광초서 일일 경제교육 특강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는 22일 오후 2시 청주시 풍광초등학교(교장 임흥빈)에서 이 학교 6학년 220여명을 대상으로 '똑똑한 경제생활과 경제특별도'라는 주제로 1일 경제교육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 정 지사는 "어려운 경제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는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알아야 하고 올바른 경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 효율적인 생활, 시간 아껴 쓰기, 생활 회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중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특별도란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로 기업에 오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장차 어

린이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현재보다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광초등학교 학생들은 "TV 뉴스에서만 보던 도지사 아저씨가 직접 찾아와 경제를 알려줘서 너무 좋았다"면서, 어느 학생은 "그동안 놀기만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도지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풍광초등학교는 2008년 3월 1일 충북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그동안 매월 경제교육 운영의 날 운영(경제 토크 콘서트, 물건 바꿈의 날 운영), 경제 교육 학습장 제작, 교사 경제 교육 연수(경제를 움직이는 손,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방법 등), 여름방학 경제탐색대 교실 운영(화폐박물관,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탐방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확실한 동기부여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주관: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041)904-0675
011-9119-7661 (직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침이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가정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9-10
TEL. 031-384-6826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칼럼

가로림만의 고민

조력발전 [潮力發電, tidal power generation]은 조수의 간만을 이용한 수력발전 방식이다. 또는 조석발전 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조석의 규칙적인 운동을 이용하여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이라 그렸다.

조력발전의 기본원리는 저 낙차 수력발전과 비슷하다. 해수의 조석간만의 차, 다시 말해서 밀물과 썰물의 조위차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해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에 유, 출입 시키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바다를 이용한 발전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방식이다. 현재 가동 중인 조력발전소는 프랑스의 랑스 [1967년 완공, 용량 400Kw], 캐나다의 아나폴리스 [1986년 완공, 용량 2만Kw], 중국의 지양시야 [1980년, 용량 3,000Kw] 등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 호주, 인도 등의 국가에서 조사 작업이 한창일뿐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지역 가로림만도 조력발전으로는 최적으로 판명 나고 있다.

그러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 타당성과 후속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대양제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공급되는 무궁해에너지라는 절대적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도 우선시 해야 한다. 서산시 팔봉면, 지곡면, 대산읍과 태안군의 태안읍, 이원면으로 둘러져 있는 가로림만은 수심이 얕고 간석기가 넓게 펼쳐져 있다. 만 입구는 북쪽을 향해 열려 있으며, 입구의 너비는 2~3Km, 만입된 길이는 25Km이다. 맞은편에는 천수만이 자리하고 있으며, 만 안에는 고파도, 웅도 등의 유인도와 울도, 조도, 대우도 등의 무인도가 있다.

또한 북쪽에 있는 덕적군도가 발파제 구실을 해줘서, 봄부터 여름까지 제주난류의 북상으로 난류성이종이 풍부하다. 조기, 새우는 물론 김, 굴의 양식업과 어족의 산란장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런 천혜의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조금은 걱정이 든다. 아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는 200

년 7월 지식경제부 [당시 산업자원부]는 서부발전과 계약을 맺었다. 서부발전은 포스코, 대우, 롯데건설 등과 함께 사업비 1조 22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11일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풍력, LED 등, 9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가로림만도 조기 착공을 한다는 선수를 쳤다.

하지만, 이 친환경적 발전소 계획은 현지주민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서산과 태안을 잇는 방조제 형태의 “해수 유통림”이 들어서면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가로림 갯벌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현지 어민들의 생활터전에 갑자기 발전소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민들은 그게 두려운 것이다. 서부발전측은 수문을 통해 물이 오가게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상하는 갯벌 30%는 훼손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족마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면 생태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프랑스의 랑스발전소를 모델로 내세웠다. 몇몇 지역인사들에게 직접 랑스 발전소를 보시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다녀오게 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각오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현지어민들도 물로 나눠져 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서산보다는 태안군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태안군 어야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계산이다. 그 속에는 국가적인 안목을 봐야 한다는 말까지 든다. 들끓는 반대 대모 속에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백지화 선언을 했다. 질했다고 본다.

또한 서산과 태산을 이어주는 국도 29호선은 언제부터인지 죽음의 도로가 되었다. 아침 출근시간 때와 저녁 퇴근 시간 때에 그 국도에 들어서면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한다. 거의가

칼럼 최창희 목사
본지 논설위원
cjanghee@kbs.co.kr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기는 교단

성경 히2:28절“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봅니다.(신 10:12),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대수(24:14),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정녕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수(24:21, 24)고 했다. 그렇습니다. 웨신총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웨신총회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기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신총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1)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신 10:12“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습니다.

시 138:1“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전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고 했다.

2) 우리 웨신총회 멤버들은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데 있다.

수 24:14“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대수(24:14),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정녕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수(24:21, 24)고 했다. 그렇습니다. 웨신총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웨신총회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기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신총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린 성품을 다해서 섬겨 드려야 합니다. 신 10:12“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다. 행 26:7“밝았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를 12:11“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행 20:19“겸손한 성품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삼기는데 있다.

행 12:28“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였다. 대상 28:9에“하나님을 알고 온전 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김지이다”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대상 29:17절“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소이다. 라고 했다.

5)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을 드려 섬기라

눅 8:3절“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며라”고 했다. 고후 9:7절“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하였다. 대상 29:17절“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라고 했다.

6)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드리는 것은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

눅 2:37절“주아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며니”라고 했다. 행 13:2에

건강도 챙기고 경제도 생각하고 세계전기의 날(11.11)기념 걷기운동... 전국 60개 시·군·구에서 개최



미국 발 금융위기 쇼크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과 파고가 전 세계 어느 계층을 가리지 않고 파급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 타결해 나가자는 운동이 속출 하고 있다.

11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단풍놀이와 운동을 겸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서로 나누어가면서 배움의 미학을 펼치고 이겨나가자는 움직임이 이는 시점에서 휴일 서울 도심에서도 이 운동의 확산을 일리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다.

8일 오후 서울 남산 국립극장 앞 광장에서 (사)세계걷기운동본부(대표 박세직 총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남상우 청주시장)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대한민국 경제살리기 한마음 걷기축제”가 열려 참가자들이 남산 순환도로 일주로 4.5km를

걸으며 개인의 건강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함께 걸으며 사랑을 나눠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세계 걷기의 날 선포

(‘2007년 11월 11일 11시) 1주년을 기념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포근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선과 후원의 걷기 축제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 박세직 총재는 이날 개최인사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1970년대는 오일쇼크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고 90년대는 IMF파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살리자는 일념으로 슬기와 지혜, 능력을 발휘해 혈심 단결함으로써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 위대한 국민”이라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기폭제요 선도자라는 사명으로 동참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박 총재는 또 “6·25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신화와

함께 걷고 소망도 하는 자선 활동이 펼쳐지고 일반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1일 천사가 되어 명동거리를 함께 걸으며 소망도 하고 경제관념도 일깨워주는 행사도 함께 이루어 졌다.

한편 이날 남산순환도로는 가을이 절정에 이르는 김복처럼 주변은 붉게 물든 단풍과 도로에 떨어진 낙엽이 걷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걷기 운동에는 은평구를 비롯한 각 구청별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한 이들 학생들에게 도시상품권도 수여되었다.

이 날 남산 순환도로 걷기운동축제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원을 비롯한 인근 경기도 지역 향군회원과 많은 여성회원들이 참석해 무르익은 가을 정취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자동노출모드와 노출보정 그리고 노출 잠금(AE-LOCK)기능



최 동 수 교수
중앙대학교 사신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신학으로 석사과정 이수

노출 보정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노출포인트가 바라보고 있는 피사체의 부분이 18그레이카드의 밝기보다 얼마나 더 밝거나 또는 어두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데 그레아만 정당한 노출보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촬영 경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먼저 테스트 촬영을 하여 촬영한 상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촬영 전에 테스트 촬영을 해보면 쉽게 보정치를 산정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동노출 잠금(AE-LOCK)기능 :이 기능은 자동노출기능을 사용할 때 카메라로 피사체 중 어느 특정 밝기 부분을 카메라에 기

역시시켜서 그 밝기를 기준으로 한 노출값으로 전체 피사체를 촬영하게 하는 기능이다 (자료 출처 : 캐논카메라)

자동 노출 잠금 기능은 피사체에서 카메라의 노출 포인트가 보고 있는 부분의 밝기를 잠시 기억시켜서 그 밝기를 기준노출로 하여 촬영되게 하는 기능인데 사용방법의 예를 들면 자동노출로 촬영 할 때 노출측정 포인트를 18그레이카드의 밝기보다 밝은 영역에 두고 노출 잠금 버튼을 눌러 그 부분을 기준 노출값으로 기억시켜서 촬영하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적정노출보다 어둡게 촬영된다

반대로 노출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 보다 어두운 영역에 두고 노출 잠금 버튼을 눌러 그 부분을 기준 노출값으로 기억시켜서 촬영하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적정노출보다 밝

게 촬영된다. 그래서 자동노출 시 적정노출로 촬영이 되게 하려면 노출측정 포인트가 18그레이카드의 밝기와 비슷한 영역에 두고 노출 잠금 버튼을 눌러 그 노출값을 기억시켜서 촬영하면 적정의 노출값에 의하여 촬영되어 사진은 적당한 밝기를 갖는다

실제 촬영시에는 자동노출 잠금기능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와 같은 밝기 조건에 있는 피사체나 그 주변에서 18그레이카드의 밝기와 비슷한 영역을 찾아 그곳에 노출 측정 포인트를 두고 자동노출 잠금 버튼을 눌러 그 노출값을 카메라에 기억시켜 촬영하면 된다

위 에서 자동 노출 사용시에 정확한 노출을 설정하여 촬영 할 수 있는 노출보정 기능과 자동노출 잠금 기능을 소개 하였다 이 두가지 기능은 자동노출촬영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자동노출기능과 위의 두 가지 기능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드를 적절히 섞어 활용하면 편리하고 쉬운 자동노출기능과 함께 수동모드와 같이 사진가가 원하는 적정의 노출값에 의하여 촬영되어 사진은 적당한 밝기를 갖는다

사진가가 자동노출모드를 사용할 때 노출보정 그리고 노출 잠금(AE-LOCK)기능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유용한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카메라의 기능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촬영한다고 해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다해 주는 만능카메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동의 편리함을 누리더라도 정확한 작동원리와 기능의 한계를 숙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식품들



우유, 고등어, 돼지고기, 계, 토마토, 메밀, 닭고기, 달걀, 밀가루, 복숭아. 모두 알레르기 유발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식품들이다.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고 각별히 주의할 기술퍼 섭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사실. 어린이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물로는 달걀과 우유가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밀가루, 대두, 땅콩, 호두와 같은 견과류 등이 있다. 이밖에 생선, 조개, 새우, 계 등의 해산물과 초콜릿, 메밀가루, 복숭아 등이 모든 음식물 알레르기의 원인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성인에게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물은 새우, 가재, 조개 등의 갑각류와 초콜릿, 밀가루, 메밀가루, 생선, 빈대기, 사과, 복숭아 등이다. 음식물에는 사과와 복숭아, 새우와 가재, 고등어와 쫄갯질이 서로 비슷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체통발생학적으로 서로 비슷하므로 그 내용이 되는 항원도 비슷하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음식

산의 정상에 있는 이가



산의 정상에 있는 이가 해 뜨는 것을 먼저 보고 욕심을 벗어 가버린 이가 자신과 인간사 전체를 꿰뚫어 보고, 가난한 마음에는 천국이 깃들고 깨끗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길 오르자’ 오늘 하루 종이함을 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행성에 작은 나무 한 그루심은 셈입니다. <연>

The Jesus Times

www.cpj.kr

한국 아프리카 친선선교 대회

UN의 날 기념 새벽월드교회

2008, UN의 날을 맞아 새벽월드교회(이승영 목사사무)에서 한국 아프리카 친선선교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등 6개국 1천여 명이 참석, 서로 자국을 소개 격려와 축하로서 친선선교 교류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분당 새벽교회 평화센터에서 지난 10월 19일 주일 오후 7시 1부 감사예배가 있는 후이루어졌다.

(김영진 장로가 대표인 마세케라씨에게 기념패 전달)

이날 6개국 1천여 방문단은 중앙아프리카에서 25년째 구제, 교육 사업과 대규모 집회 사역을 해 온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의해 초청됐다. 매년 10월마다 아프리카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개발된 모습과 견고한 신앙, 친절한 섬김을 전달하며 영적 일깨움을 제공해왔던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특히 내년 7월 한국, 미주 한인 여성 지도자를 포함, 4천여 명이 참여하는 '2009 아프리카 여성지도자 대회'를 앞두고

여성 지도자들을 초청했다. 이번 방문단은 아프리카 국가의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의 부인들도 대거 참석하고 있어 한국 아프리카 친선선교 대회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장로가 사회를 맡고 송윤기 목사(기성총무)기도, 독고인호 장로(새벽교회)가 성경봉독, 새벽교회파스찬양대, 아프리카선교파밀리가 찬양, 이승영 목사(새벽교회)가 "재 하늘과 새 땅"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 한-아프리카 선교·친선협회 한국 측 대표회장 김영진 장로(한일기독교의원연맹 대표회장)는 "아프리카는 지구촌에서 가장 취약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선교의 현장"이라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지구촌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장로는 "내년 여성 지도자 대회 때 한-아프리카 선교·친선협회 공동사업팀을 대규모로 파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방한단 대표인 에니그렌자 마세케라씨는 아프리카는 한국처럼 독립 이후 4, 50년이 지난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후원과 기도를 요청 드림다. 한국 방문의 감격을 전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우린 분명 꿈을 이룰 것입니다."고 했다.

또 마세케라 대표는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어 "한국은 50년 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경제대국이 된 것이 놀랍다"며 "평정한 도전을 받고 이러한 열정을 배우고 돌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평용 선교사와 그 멤버들의 끊임없는 수고로 여기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는 분명 우리가 꿈꾸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이 있다. 아프리카가 견

고한 기초위에 설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또 황우여 장로(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배대진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가 축하를, 이준 장로(전 국방부장관), 전용태 장로(재, 성서화운동 이사장)가 특별기도를 했다. 또한 이날 친선협회 한국 대표 김영진 장로가 마세케라 대표와 김평용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에게 방한 기념패를 전했다. 김영진 장로와 배대진 장로가 마세케라 대표와 김평용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에게 방한 기념패를 전했다. 김영진 장로와 배대진 장로가 마세케라 대표와 김평용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에게 방한 기념패를 전했다.

특히 이날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 새벽교회 성도들은 행사 도중 서로간의 격려의 포옹을 통해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방문단에게 한국 전통 양식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행사 말미엔 순서지들과 방문단 모두가 함께 단 위에 올라 찬양을 부르며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슬람 누룩 5년 후면 성직자에게도 확산될 뜻

한국교회 성직자들 이슬람의 누룩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이슬람화하겠다는 무슬림들의 포고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교회가 이슬람과 무슬림을 구분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선교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한국교회 내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종 현상은 점차 심각해져 약 5년 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목사·신부 등 성직자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교회의 뿔간불이 커졌다.

중동선교회는 지난 11일 오전 9시 서울 연동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교인의 '이슬람 개종' 증가...5년 후면 성직자들에게도 확산될 것.

중동선교회(이사장 두상달 장로)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연동교회의 연동교회 분당에서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전국 교회 지도자 초청 이슬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슬람의 실제'에 대해 발제한 이만석 선교사는 한국교회를 향한 이슬람의 포고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무슬림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평신도들 사이에서 무슬림들의 전도에 이슬람의

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들에 대한 대처법을 몰라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례가 평신도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목사나 신부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선교사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5년 정도만 지나면, 이들 나라의 전형을 밟게 될 확률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슬람에 대한 전문적인 신학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쓴 서울 연동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교인의 '이슬람 개종' 증가...5년 후면 성직자들에게도 확산될 것.

중동선교회(이사장 두상달 장로)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연동교회의 연동교회 분당에서 '하나님은 무슬림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전국 교회 지도자 초청 이슬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슬람의 실제'에 대해 발제한 이만석 선교사는 한국교회를 향한 이슬람의 포고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무슬림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평신도들 사이에서 무슬림들의 전도에 이슬람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4복음서도 성(姓)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만으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예수의 제자들을 복음서의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군데군데 섞여있는 복음서조차도 인간에 의해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그들의 논리다.

이 선교사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근 논란이 됐던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듯, 비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슬림은 이슬람의 최대 희생자... 한국교회도 사랑으로 포용하자"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이슬람과 무슬림을 구분해 이해할 것'과 '무슬림을 사랑으로 포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이슬람에 대한 정보들이 언론 매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이슬람 하면 '무선다' 또는 '살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며 "이슬람을 위협한 종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슬람은 하나의 종교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이라며 "무슬림은 이슬람의 최대 희생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약한 영의 포악에 빠져 거짓 진리에 충성하는 무슬림들을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선교사 외에도 강승민 선교사와 김도훈 선교사가 '유럽의 이슬람화'와 '한국의 이슬람화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해 발제했다.

(재)사랑과행복나눔, 500여 가정에 월동용품 전달

여의도순복음교회 자원봉사자들, 서울 및 수도권 저소득 가정에 연탄과 쌀, 김치 직접 전달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동행기를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용품(연탄 또는 유류상품권, 쌀, 김치)을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5개 구청과 경기 6개 시(부천, 안산, 안양, 수원, 성남, 김포)에서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500가정을 수혜대상자로 모집을 완료하였고, 이들에게 각각 연탄 100장, 쌀 20kg, 김치 10kg를 지원하게 된다. 오는 27일(목) 여의도순복음교회 베

다니광장에서 김치담그기 행사를 진행하며, 사랑과행복나눔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글 예정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은 쌀과 김치, 유류상품권을 선정된 서울시와 수도권 일대 수혜자 가정에 직접 배달하게 된다. 또한 연탄나눔행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교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

웃들이 더욱 용기를 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Sohot, sohappy' 김치 담그기 행사와 함께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전달식은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 광장에서 열리게 된다.

The Jesus Times
www.cpj.kr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충만한 교회

오산반석교회

Jesus Christ

담임목사: 김봉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랑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사/람/들 * 예/수/의/사/람/들
대한예수교총회
오산반석교회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IW영재교육	오후 1:00(토)
일과파라	오후 6(주일)	중·고등부	오후 9:30(주일)
디자이너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인생상담 및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선 목사

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건·강·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담임 오종설 목사

0411634-0441(사무실)
0411633-9146(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사선을 넘어서...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4화] 가족과 생이별... 조선족 행세 식당 인수해 탈북여성들 고용



졸지에 간첩으로 몰려 중국 도괴생활을 시작했다. 가족과 생이별한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교회로 찾아가 두 손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다. 기도라기보다는 애곡이고 통곡이었다. 하루는 혼자서 소바처럼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부르던 중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 '우선 중국 조선족 신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체하지 않았다. 안내인을 통해 조선족 호구를 샀다. 그리고 성형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무조건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차츰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기

본도 조금씩 익혀갔다. 그러면서 최근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주만 들었다. 남한사람들과의 만남, 선물로 받은 성경책, 세 번이나 교회에 찾아가 십일조를 바친 일, 그것이 보고되어 체포령이 내려진 일 등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불현듯 중국 둥징(龍井)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더니 북한에 있어야 할 아들 철이가 그곳에 와 있었다. 필대로 북한 땅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 부모님이 모험을 시도한 것이었다. 며칠간 철이와 함께 지낸 뒤 사람을 사서 철이에게 돈과 편지를 쥐여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용이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철이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마음을 접고 중국 소학교에 입학시켰다. 성형수술한 얼굴에 부기가 빠지자 다행히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 됐다. 자신을 얻고 식당을 하나 인수해 개업했다. 문을 열

자마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밀려왔다.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십일조는 제1의 생활준칙이었고, 매일 아침 영언시작 전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자연스럽게 탈북한 젊은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했다. 모두들 좋아했다. "언니,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한참을 궁리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기지를 주셨다. "하나님 만세"라는 뜻이야. "그럼 언니, 아멘은 또 무슨 뜻이야?" 역시 한참을 생각했다. "암 그랄구 말구"라는 뜻이야.

우리는 어려운 외국말 대신 '하나님 만세'를 세 번씩 외친 뒤 기도를 시작하고 '암 그랄구 말구'로 마무리했다. 모두 왕초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했다. 당시 중국 교회들에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들이 집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십일조를 바칠 때에만 내가 비밀리에 교회로 가 직접 전했다. 하루는 기도하던 중 '이

이주연의산마루서신

행함이 있는 믿음

- 14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였느냐
-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헛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오늘을 경이로 맞으십시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산마루며 은총입니다. 그리고 멋진 삶의 기회입니다.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보다 귀한 가정의 행복과 가르침과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연>

오늘의산마루 성경 묵상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입당 및 헌당식

순복음진주초대교회(담임 이경은목사)에서 11월 24일 입당 및 헌당예배가 3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으며, 이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과 관계자들이 성전에 입장하기 전 성전 마당에서 테이프 커팅과 함께 축포와 3000여개의 5색 풍선이 화려하게 진주지역 하늘을 수 놓았다. 담임 이경은 목사의 사회로 입당 및 헌당예배가 진행되고 특별히 기하성 총회장 박성배목사가 설교에 나섰으며,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수고한 성도들을 격려와 위로로서 축복했다. 또 이경은 목사와 함께 임마누엘 형제회의 회원인 나경일 목사, 한영훈 목사, 엄기호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한기종 대표회장 연신환 목사도 영상축하메시지를 전례와 성도들의 기쁨이 더욱더 넓혔다. 이어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이경은 목사가 쏟은 땀과 눈물이 담긴 영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큰 감동이 주어졌다.

순복음진주초대교회는 1700명의 성도와 100여명의 찬양단과, 15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수용하는 대 성전과 주일학교와 각종 소 예배실로 사용되는 그레이트홀, 각종 세미나와 결혼식을 겸하여



할 수 있는 세미나실, 초대교회의 자랑인 오케스트라단과 성가대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 내어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음처리를 해 놓은 성가대실, 그 외에도 성도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로뎀카페,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1000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북카페, 성전의 옥상을 공연장으로 꾸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하늘정원,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VIP룸과 게스트룸 등 성도들이 마음껏 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축되었다. 게다가 성전의 외관도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지나가는 이마다 눈길을 머물게 하고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성전은 1992년 진주시 신안동에 109㎡의 2층 건물에 개척한 이후로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청원에 제2성전을, 서울에 제3



성전을 설립하여 급성장한 교회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통하여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삶에 적용하게 함으로 성도를 용사로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하며,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많은 교회에도 적용되어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 이경은 목사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이경은 목사의 바람이라며 12월 8일~10일까지 청원초대교회에서 아바드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 성도들의 참석을바라고 있다.

전향희기자

웨신중앙노회 제18차 정기노회

웨신 중앙노회(노회장 정일량 목사)는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늘사랑교회(손성규 목사)에서 제18차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서기 손백두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부노회장 손천현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정광철 목사가 사도행전 8:1-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정일량 목사가 "그리스도를 전파"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중앙노회원을 격려하고 총회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중앙노회 소속이며 본 총회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와 함께 배석했다. 이날 중앙노회는 2부 성찬식을 증명노회장 감용진 목사 집례로 거행되고 3부 회무 처리에 들어가 감봉구 목사가 기도를, 서기 손백두 목사가 회원점령을 하고 개회선언과 함께 절차에 따라 회무가 진행되어 현 노회장 정일량 목사와 임원을 그대로 연임해 갔다.

또한 중앙노회는 지난 11월 월례회는 노회 단합대회를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회리 산22 원천기도원 수양관(원장 서무식 목사)에서 가졌다.



Yes, we can

오바마의 Yes, We can의 메아리가 미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까지 뒤흔들고 기쁨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들어오던 Yes, I can과는 사뭇 다른 반향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하고 차별 받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다 함께(We) 질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외친 이유 때문입니다. Yes, I can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신화를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자기 개인(We)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 외치는 I can do 역시 우리의 마음을 편지 않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승리자들이 외치는 Yes, I can이 아니라 오바마가 외치는 Yes, We can 쪽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과 교회의 상황은 오바마와

그 지지자들이 외치던 상황보다도 더 큰 필박과 차별 속에서 처절하였으니 말입니다. <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축입당감사에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부지 2000평과 예배당 건물(200평)매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입당감사 예배를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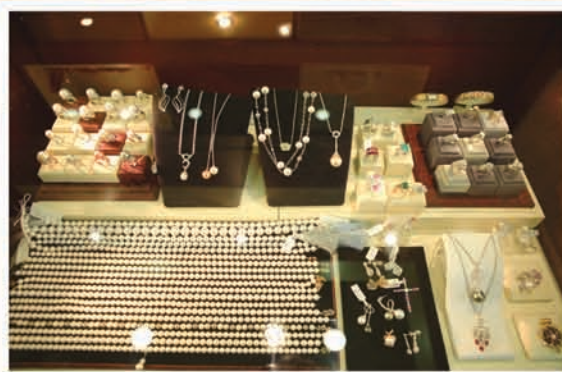
장소: 주천성교회(구:성도교회)
일시: 11월 29일(토) 오전 11시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245-4
☎ 031)656-5830 H · P 010-8585-9137

성탄과 연말선물은 "에뚜알"에서 준비하세요. 당신을 최고의 VIP로 모실것을 약속합니다.

금, 다이아몬드 도매구입 및 상담문의
대표 강정순 : 02-2272-5261
임평소 장로 : HP_011-432-2122



- ▶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를 한곳에서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 금, 다이아몬드를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 ▶ 교회 임직 및 칠순·회갑 한복을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예산을 대폭으로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otal wedding Etoile

토탈웨딩 에뚜알

문의 : 정기남 011-468-6574

저희 에뚜알은
고객입장에서 배려하고
형편에 맞게 최적의 상담으로
당신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Total wedding Etoile

대표전화 :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e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관 12층 전관
(1호선 종로5가역 12번출구 도보 3분)

